

## 현대차그룹 미국 투자로 관세부담 완화 예상되나, 재무부담 확대 수준 모니터링 요구됨

홍세진 기업평가본부 수석연구원 02-2014-6224 sejihong@nicerating.com

송동환 기업평가본부 책임연구원 02-2014-6364 dhdong@nicerating.com

박세영 기업평가본부 기업평가1실장 02-2014-6246 sypark@nicerating.com

2025.03.27.

### SUMMARY

#### 현대차그룹 미국 투자 개요

- 현대차그룹은 2025년 3월 25일 향후 4년간(2025~2028년)의 미국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총 투자규모는 210억달러(약 31조원)이며, 부문별 투자 계획은 하기와 같다.

표 1. 현대차그룹 투자개요

단위: 억달러

주요 관련 산업	투자내용	투자금액	비고
자동차	생산설비	86	메타플랜트 20만대 증설, 기존공장 설비 현대화
	미래산업	63	로봇, AI, 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분야 협력 확대
철강	생산설비	58	전기로 제철소 건설
기타		3	부품 현지화율 증대
합계		210	

자료: 현대차기아 공시자료

#### 자동차 부문 투자 내용 및 영향

- 자동차부문은 미국 생산설비 투자 86억달러와 미래산업관련 투자 63억달러가 향후 4년간 집행될 예정이다. 금번 미국 생산설비 투자로 인해 조지아 메타플랜트의 연간 생산가능물량은 기존 30만대에서 50만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생산설비 투자 외에도 미국 현지법인들인 Motional, Boston dynamics, Supernal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항공모빌리티 등 미래산업관련 투자도 진행될 계획이다.
- 금번 투자로 현대차그룹의 중장기적인 관세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현대차그룹의 미국 판매량 170만대 중 미국 현지 생산물량은 약 60만대에 불과하나, 향후 조지아 메타플랜트의 증설로 관세부담 대상은 현재 110만대에서 50만대까지 감소될 수 있다. 다만, 메타플랜트의 가동이 본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국이 2025년 4월 즉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단기적인 관세부담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또한, 국내 차량 생산량이 미국 생산으로 대체되면서, 국내 공장 가동률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고려 시, 향후 현대차·기아의 영업수익성은 관세부과시기와 관세율, 국내외 생산설비 효율화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 투자부담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무안정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현대차·기아는 중기적으로 높은 투자부담이 지속될 예정이다. 특히, 금번 미국 투자까지 감안하면, 현대차·기아의 연간 투자규모(전략/설비/연구개발 투자)가 25조원을 기록하며, 과거 투자부담(21~24년 평균 17조원)을 다소 크게 상회하게 된다. 다만, 현대차·기아가 최근 3개년(2022~2024년) 평균 EBITDA와 영업현금흐름을 각각 28조원, 26조원을 기록하는 등 이익 및 현금창출력이 매우 풍부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기 투자부담에도 불구하고 현 수준의 재무안정성은 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현대차·기아가 매우 풍부한 재무적용통성(2024년말 순차입금 -35조원)을 확보한 점을 감안하면, 동 투자 부담에 중단기적으로 무난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 철강 부문 투자 내용 및 영향

- **철강부문은 총 58억달러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으며, 미국 내 전기로 제철소 건설에 소요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신규 전기로 제철소 설립을 통해 총 27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제철소는 자동차 강판 특화 일관제철소로, 자동차용 냉연강판을 주력으로 제조하여 미국 내 그룹사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현지 생산기반 확보는 현대제철의 사업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제철소의 생산 물량은 자동차 공장 투자에 따라 창출될 신규 수요 대응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대차·기아 및 부품사들 향 Captive 물량이 일정수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관세부과에 따라 현지 제철소를 통한 생산 물량은 관세를 부담하는 수입제품 대비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점들은 현대제철의 사업경쟁력에 긍정적인 측면이다. 다만, 미국 현지 높은 수준의 생산단가 등은 신규 제철소 수익성 확보의 부담요인이다.
- **투자자금 소요는 현금흐름 상 부담 요인이며, 외부 투자 지분 규모에 따라 재무부담 가중 정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신규 제철소 투자의 경우, 연 평균 2조원 규모의 자금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개년 평균 현대제철 연결기준 CAPEX는 1.1조원인 점, 4조원 수준의 EBITDA를 시현한 2021년 이후 EBITDA 창출규모 축소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현대제철의 신규 제철소 투자는 현금흐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투자 금액 중 일부는 현대차그룹사 혹은 기타 투자자의 공동 투자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외부 투자 지분의 규모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현대제철의 재무부담 가중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및 향후 모니터링 요인

- 현대차기아의 경우 관세 부담으로 인한 영업수익성 저하가 우려 되었으나, 금번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으로 인해 관세 부담이 기존 예상 대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외 생산물량 조정 과정에서 추가비용 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생산설비 효율화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현대차기아가 매우 풍부한 재무적용통성을 바탕으로 확대된 투자부담에 대응하며, 현 수준의 재무안정성이 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현대차기아가 자동차 부문 외 철강 부문 등에서 투자 자금소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구조도 주요 점검 요인이다.
- 현대제철의 경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기조 하, 현지 일관제철소 설립을 통해 미국 시장 내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 높은 수준의 현지 생산단가 등은 영업실적의 변동성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CAPEX 및 EBITDA 창출규모를 감안할 경우 신규투자는 현금흐름 상 부담요인이나, 계열사 등과 공동투자를 검토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무부담 가중 정도는 공동투자 지분 규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 상기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영업실적 추이와 투자 계획 이행에 따른 재무안정성 변동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 목차

I. 현대차그룹 미국 투자 개요 .....	4
1. 자동차.....	4
2. 철강.....	5
II. 미국 투자 확대의 영향 .....	5
1. 자동차.....	5
2. 철강.....	6
III. 결론 및 주요 모니터링 요인 .....	8

## I. 현대차그룹 미국 투자 개요

현대차그룹은 2025년 3월 25일 향후 4년간(2025~2028년)의 미국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총 투자규모는 210억달러(약 31조원)이며, 부문별 투자 계획은 하기와 같다.

표 1. 현대차그룹 투자개요

단위: 억달러

주요 관련 산업	투자내용	투자금액	비고
자동차	생산설비	86	HMGMA 20만대 증설 및 기존공장 설비 현대화
	미래산업	63	로봇, AI, 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분야 협력 확대
철강	생산설비	58	전기로 제철소 건설
기타		3	부품 현지화율 증대
합계		210	

자료: 현대차기아 공시자료

### 1. 자동차

금번 발표한 자동차부문 **1) 미국 생산설비 투자 86억달러**의 주요 투자 내용은 조지아 메타플랜트 증설 등이다. 현대차그룹은 2004년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 앨라배마공장(연간 생산가능 물량 36만대)을 시작으로 2010년 기아 조지아공장(34만대), 2025년 메타플랜트(30만대)를 완공하며 미국에서 현재 100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표 2. 현대차그룹 미국 현지 자동차 생산설비 현황

단위: 대

구분	완공연도	현재 CAPA	증설	증설 후 CAPA
현대차 Alabama	2005년	338,000	-	338,000
기아 Georgia	2010년	340,000	-	340,000
현대차/기아 Georgia 메타플랜트	2025년	300,000	200,000	500,000
합계		978,000	200,000	1,178,000

자료: 현대차기아 공시 및 자료

현대차그룹은 금번 투자를 통해 향후 조지아 메타플랜트의 연간 생산가능물량(이하 CAPA(Capacity))을 기존 30만대에서 50만대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또한, 기존 앨라배마(현대차)와 조지아공장(기아)의 생산설비 현대화 및 효율화를 위한 보완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생산설비 외에도 자율주행, 로봇, AI, 항공모빌리티 등 **2) 미래산업관련 63억달러**의 투자가 집행된다. 현대차그룹은 Waymo(알파벳 산하)와의 협력을 통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확대 및 현대차그룹 미국 현지법인인 Motional 투자 등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 외 미국 현지법인인 Boston dynamics 투자로 강화학습 기반의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며, Supernal 투자로 2028년 미래 항공모빌리티 기체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 2. 철강

철강관련 58억 달러의 투자는 현대제철의 미국 루이지애나주 현지 전기로 제철소 건설에 소요 될 것으로, 현대차그룹의 철강사업 현지 경쟁력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파악된다. 현지 전기로 제철소는 총 270만톤 규모의 자동차 강판 특화 일관제철소로, 자동차용 냉연강판을 주력으로 제조하여 미국 내 현대차그룹사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현재 국내 보유 중인 제철소를 통해 연 조강 생산능력 기준 약 2,200만톤(전기로 공정 1,000만톤 및 고로 공정 1,200만톤)을 확보하고 있다. 금번 투자를 통해 현대차 그룹은 해외 현지에 추가적인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저탄소, 고품질의 자동차 강판 공급 현지화를 통해 관세 등 불확실한 대외 리스크에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II. 미국 투자 확대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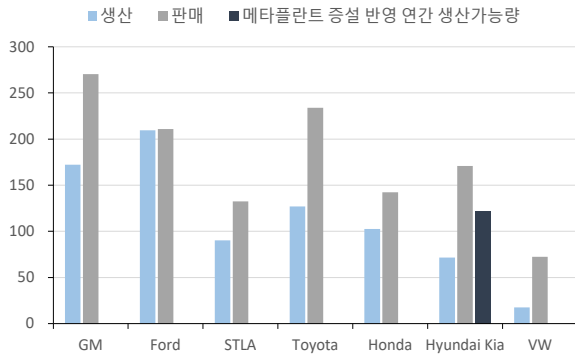
### 1. 자동차

2025년 4월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생산설비 확대에 의해 관세 부담 대상이 중장기적으로 축소되게 되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2024년 현대차그룹의 미국 판매량 170만대 중 미국 현지 생산·판매물량은 약 60만대에 불과하다. 향후 조지아 메타플랜트의 증설로 인해 최대 약 120만대까지 미국 현지 생산·판매물량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세부담 대상의 자동차 판매량은 현재 110만대에서 50만대까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지아 메타플랜트의 가동이 본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이 2025년 4월 즉시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단기적인 관세부담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국내 생산물량이 미국 현지 생산물량으로 대체되면서, 국내 공장 가동을 저하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국내외 생산설비 재배치 비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외 공장 효율화 과정이 요구되며, 향후 현대차·기아의 중단기적인 영업수익성은 관세부과시기와 관세율, 국내외 생산설비 효율화 과정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차·기아는 전동화 전환 과도기 과정에서의 제품개발 및 설비투자, 미래사업 관련 전략투자(로봇산업, 항공모빌리티) 등으로 중기적으로 높은 투자부담이 지속될 예정인 가운데, 금번 발표된 미국 투자로 자금소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의 2021~2024년 평균 투자부담은 17조를 기록하였으나, 금번 발표된 투자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연간 투자규모는 약 25조원을 육박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1. 주요 회사별 미국 내 생산 및 판매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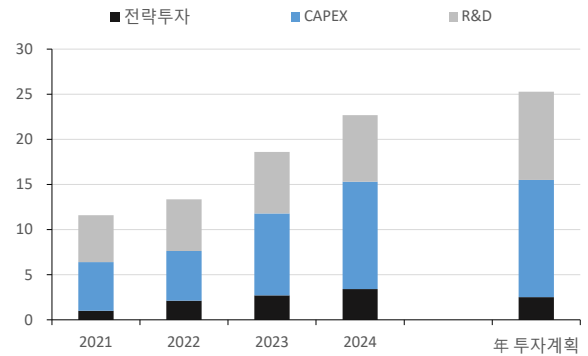
단위: 만대



자료: Marklines(2024년기준)

그림2. 현대차기아 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조원



자료: 현대차기아 공시 및 제시자료(2024년 기준)

한편, 현대차·기아 합산 기준 최근 3개년(2022~2024년, 현대차는 자동차 부문 실적) 평균 EBITDA와 영업현금흐름이 각각 28조원, 26조원을 기록하는 등 이익 및 현금창출력이 매우 풍부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기 투자부담에도 불구하고 현 수준의 재무안정성은 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대차·기아가 매우 풍부한 재무적용통성(2024년말 순차입금 -35조원)을 확보한 점을 감안하면, 동 투자 부담에 중단기적으로 무난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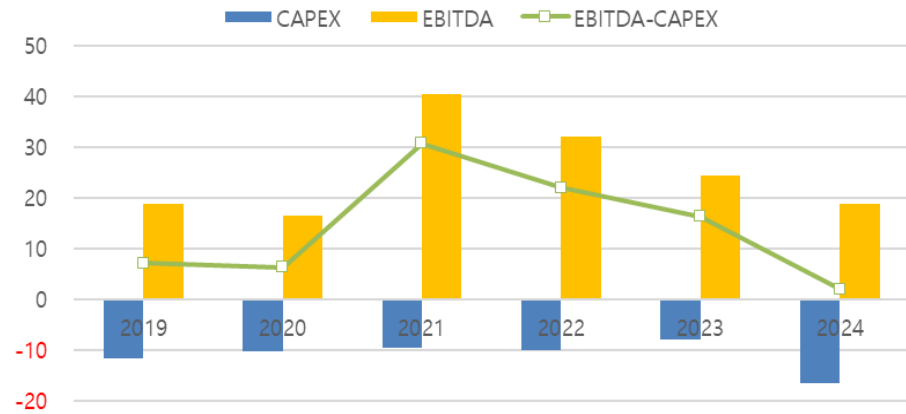
## 2. 철강

금번 제철소의 생산 물량은 자동차 공장 투자에 따라 창출될 신규 수요 대응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대차·기아 및 부품사들 향 Captive 물량이 일정수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수입산 철강에 대한 25%의 관세부과가 현실화되며, 현지 제철소를 통한 생산 물량은 관세를 부담하는 수입제품 대비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은 현대제철의 사업경쟁력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부가 제품을 취급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인건비 및 제조경비 등 고려 시 미국 내 생산 단가가 국내 제철소 대비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신규 제철소의 수익성을 일부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미국 내 제철소 확보는 현대제철의 사업기반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높은 수준의 현지 생산원가는 영업실적의 변동성을 가중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그림3. 현대제철 EBITDA 및 CAPEX 추이

단위: 천억원



자료: 현대제철 공시자료 (연결기준)

한편, 제철소 건설에는 연 평균 2조원 규모의 자금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개년 평균 현대제철 연결기준 CAPEX는 1.1조원인 점, 4조원 수준의 EBITDA를 시현한 2021년 이후 EBITDA 창출규모 축소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현대제철의 신규 제철소 투자는 현금흐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소요 금액의 50%는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다만 이외 50% 중 회사 투자분 외 현대차그룹사 혹은 기타투자자의 공동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외부 투자 지분의 규모 등에 따라 현대제철의 재무안정성지표 수준 및 재무부담 가중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Ⅲ. 결론 및 주요 모니터링 요인

현대차·기아의 경우 관세 부담으로 인한 영업수익성 저하가 우려 되었으나, 금번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으로 인해 관세 부담이 기존 예상 대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지아 메타 플랜트의 생산이 본격화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2025년 4월 즉시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단기적인 관세부담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국내 외 생산설비 재배치 및 국내 공장 가동을 저하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글로벌 생산설비의 효율화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한편 투자부담의 확대는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요인이거나, 매우 풍부한 재무적용통성을 바탕으로 확대된 투자 부담에 무난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제철의 경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기조 하, 현지 일관제철소 설립을 통해 미국 시장 내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 높은 수준의 현지 생산 단가 등은 영업실적의 변동성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최근 CAPEX 및 EBITDA 창출규모를 감안할 경우 신규투자는 현대제철의 현금흐름 상 부담요인이다. 다만, 계열사 등과 공동투자를 검토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무부담 가중 정도는 공동투자 지분 규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상기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영업실적 추이와 투자 계획 이행에 따른 재무안정성 변동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표 3. 미국 투자관련 현대차그룹 산업별 주요 모니터링 요인

구분	주요 모니터링 요인
자동차	- 한국 수출 차량 관세율 및 관세부과시기 - 국내외 생산물량 재배치 등에 따른 공장별 효율화 프로세스 - 실제 투자규모 및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변동 추이
철강	- 국내외 철강업황 및 시장환경 변화 - 투자집행에 따른 재무부담 변동추이

자료: NICE신용평가

## 관련참고자료

[현대자동차\(주\) 기업상세정보 \(기업개요 / 평정요지 / 재무부표\)](#)

[기아\(주\) 기업상세정보 \(기업개요 / 평정요지 / 재무부표\)](#)

[현대제철\(주\) 기업상세정보 \(기업개요 / 평정요지 / 재무부표\)](#)

### 〈유의사항〉

NICE신용평가(주)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또는 발행주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이며, NICE신용평가(주)가 외부에 제공하는 보고서 및 연구자료(이하 '발간물')는 상대적인 신용위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위험을 미래의 채무 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예측정보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 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고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 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평가 대상인 발행주체와 그의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신용평가(주)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 시 활용된 또는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발간물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에서 작성한 발간물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든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